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본격화

광주시, 2024년 개관 목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750억~1000억 추정…이르면 내년 착공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 2 전시장은 서구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1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최근 시작됐다.

광주시는 용역 업체에 건축 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적정 사업비 산출, 자원 조달 계획 등 기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국내외 타 센터와 비교 분석, 최신 트렌드 벤치마킹을 거쳐 센터 건립 및 발전 전략 수립도 요구했다.

제2 전시장 건립지 인근에 상업·업무·편의시설 등 복합개발에 대한 검토안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4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넘겨받기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운 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행정안전부 심의, 자체 도시계획 변경,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건물 설계,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착공한다는 목표다.

건립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 제1주차장(1만8900여㎡)으로 8~1만㎡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비로 750억~1000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 심의에 5개월가량 소요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착공은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하다"며 "개관은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 전시장 신축 사업을 추진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최근 5년 전시장 가동률이 71% 수준으로 전시 공간이 포화상태여서 밀려드는 전시회를 소화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 전시 물품 철거 및 신규 설치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 포화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타지역 전시컨벤션센터의 신·증축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20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구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들이 '100세친구 동구 노인일자리 실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전남도 '글로벌 노벨캠프' 해외연수 추진

노벨상 수상 대학·연구소 방문
물리·화학분야 19명 참가

전남도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노벨상을 수상한 해외대학과 연구소를 찾는 글로벌 R&E(Research & Education) 프로젝트 '글로벌 노벨캠프'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노벨캠프 해외 연수는 물리와 화학분야부터 추진된다. 물리의 경우 19일부터 8박 10일간 일정으로 물리분야에 지원한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 노벨캠프는 2012년 힉스입자 발견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으로 알려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진행된다. CERN은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힉스입자를 발견한 피터 힉스(Peter W. Higgs)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벨캠프 물리분야 참가학생들은 전남대 문동호 교수, CERN KoALICE 연구원 김범규 박사와 함께 지하에 위치한 세계 최대강입자가속기와 검출기를 직접 탐방하고, CERN에서 열리는 국제공동연구 초청강연 및 포럼을 참관하게 된다.

화학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10박 13일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진행되며, 총 1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게 된다. 올해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및 CCNY(City College Of Newyork)에서 무기화학을 주제로 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콜롬비아 대학은 노벨상 수상 랭킹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화학분야에서는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CCNY 또한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섬지역 응급환자 원격 협진 시스템 개발

행안부 개발 공모사업 선정
국비 16억 받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섬의 절반 이상이 산재해 있는 전남도가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원격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전남도는 20일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에서 '도서지역 재난/사고 응급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 연구'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유인도 276개, 무인도 1889개 등 2165개의 섬이 있으며, 이는 전국(3339개)의 65%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개발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재난안전 위험도와 이슈 등을 반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기획·개발·실증을 해 재난안전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서지역 재난/사고 응급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 연구'는 다도해로 구성된 전라남도의 의료 및 보건, 교육, 재난 구호 등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등을 배경으로 발굴됐다. 총사업비 20억원 가운데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응급사고 발생 시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송 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가 금지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현지 의료진-응급구조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곳 적발

설 앞두고 80곳 점검 결과

설을 앞두고 제수용 식품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주시 합동점검에서 업체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수·선물용 식품제조업체, 제사음식(전·튀김)전문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등 8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제조업체 26곳, 일반음식점 24곳, 즉석판매제조업 8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2곳이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체 3곳,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이다. 관할 기초단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점검대상 업체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전·튀김, 수산물 등 식품 3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식품위생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위생 감시원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점검반(5개반, 21명)이 수행했다.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돌보미 지원

한 가정 당 최대 70시간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광주시는 올해도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국 출신 산모돌보미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용 희망 가정은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63-296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주 거주하는 등록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과 고려인 여성 산모(출산예정자 포함)다.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 넘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모와 같은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이 산모돌보미로 파견된다.

산모돌보미는 가정 당 70시간 이내(일일 5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산모 식사 등 영양관리와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신상아 목욕 등 청결관리, 신생아 돌보기를 돕는다.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등 육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신청과 서비스 이용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이용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신국 산모돌보미 지원은 지난 2010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29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대표 맛집 133개 음식점 선정

전남도가 지난해 말 22개 시·군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음식점 15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전남 대표 맛집 133개 음식점을 선정했다.

남도음식명가는 지역의 농·수·축산물 식재료를 사용한 특색(맛)있는 음식점으로서 남도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전라남도지사가 인증한 엄선된 모범음식점이다.

또 2007년부터 음식 맛·서비스·가격·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2년마다 새롭게 지정된다.

그동안 남도음식명가는 전남 대표 음식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음식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이번에 선정된 133개 남도음식명가 대표자를 초청해 명가 지정서를 직접 교부하고 친절서비스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도음식명가의 음식 메뉴는 한정식 31개소를 포함한 한식 음식점이 94개소로 전남이 명실상부한 한정식의 고장임이 입증됐다. 이밖에 회정식 14개소, 탕류 16개소 등이 남도음식명가의 음식 메뉴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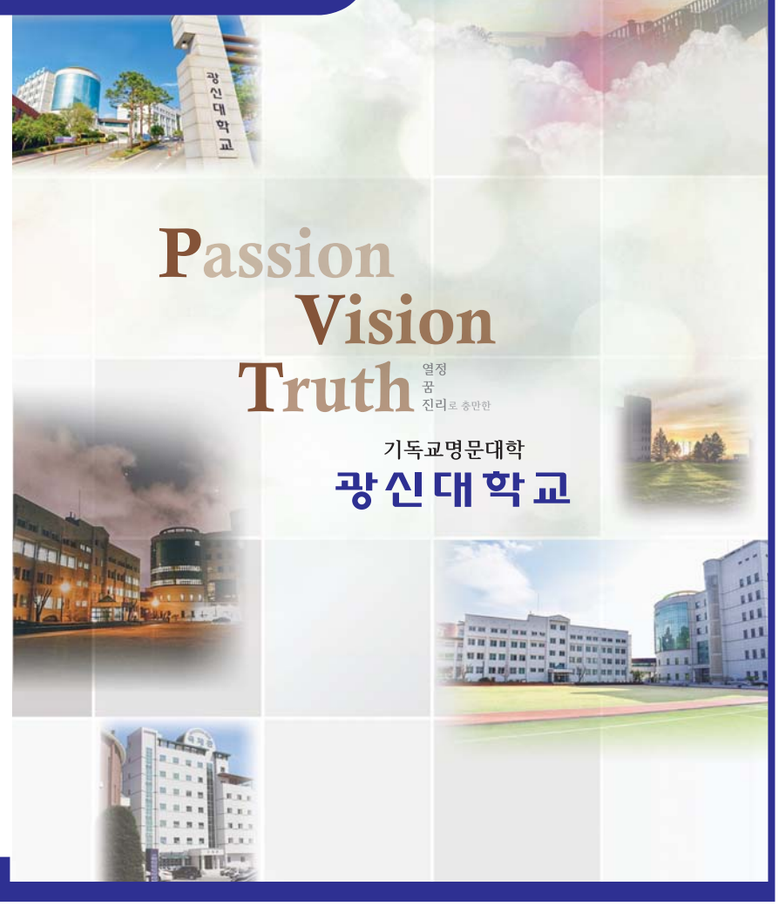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0. 1. 20(월) ~ 29(수)
· 전 형 일 : 2020. 2. 3(월)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0. 1. 20(월) ~ 29(수)
· 전 형 일 : 2020. 2. 3(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